

## 1 개요

명월본향 축일당 본풀이는 한림읍 명월리 축일당의 내력을 담은 신화이다.

최주국 아들과 정좌수 따님이 혼인을 하여 낳은 자식들이 인근 여러 마을로 흩어져 당신이 되었다.

## 2 내용

최주국 아들은 부모의 눈 밖에 나서 쫓겨났다. 마상총을 들고 깊은 산속으로 올라가 열심히 사냥을 해도 소득이 없었다. 이때 정좌수 따님도 부모의 눈 밖에 나서 죽으려고 산속으로 들어갔다. 최주국 아들과 정좌수 따님이 산속에서 만났다. 최주국 아들이 정좌수 따님의 손목을 붙잡으려고 하니 정좌수 따님이 부모 허락 없이는 허용할 수 없다며 거절하였다. 그래서 정좌수 따님이 최주국 아들을 데리고 집으로 갔다. 그러나 이미 자식이 아니니 나가라고 해서 그대로 집을 나왔다. 둘이 부부가 되어 아기를 여럿 낳았다. 자식들은 인근 여러 마을로 흩어져 당신이 되었다.

## 3 특징

한림읍 옹포리에 거주하던 남무 김승은이 전승한 자료이다. 금악본향당본풀이와 대체로 유사하다. 금악계 당신의 본풀이이니 당연한 현상이다. 다만 정좌수 따님이 최주국 아들을 힘으로 제압하는 대목이 없는 점, 거둬해서 부모에게 쫓겨나는 점이 다르다.

## 4 핵심어

최주국 아들, 정좌수 따님, 마상총, 사냥

## 5 원전 서지사항

명월본향 축일당(진성기, 《제주도무가본풀이사전》, 민속원, 1991)

## 6 관련 자료